靑 '뿔난 佛心 달래기' 고심 또 고심

불교계 "4대 요구 수용 안 되면 지역별 규탄 대회" 압박

李 대통령 입장 표명·어 청장 자진 사퇴 등 묘책찾기 부심

청와대가 '종교 편향' 논란을 둘러싼 불교계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불교계가 대통령의 사과, 종교차별금지법, 어청수 경찰청장 퇴진, 수배자 해제 등 4대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석 이후 지역별로 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압박 강도를 계속 높여가자 묘책 찾기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어청수 경찰청장 문책 등을 포함한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하고 나서자 청와대는 난감해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청와대는 일단 '원칙론'을 고수하며 상황을 살피고 있다.

수배자 해제는 물론이고 대통령 사과나 어 청장 퇴진 요구 모두 정치색이 짙은 만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특히, 어 청장 문책 문제와 관련, 불교계의 심정은 십분 이해하지만 법과 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불교계 요구를 수용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어 청장 문책에 나설 경우, 당장 경찰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은 물론 국정 장악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현실적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까지 기존 입장에서 별다른 변화는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불교계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지 못한 측면이 있는 만큼 좀 더 시간을 갖고 소통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 청와대가 결국 어 청장 해임 등 불교계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추석 이후 불교계가 또 다시 거리로 나설 경우, 정국 운영에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여당까지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입지가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옹케티아 (왼쪽에서 세번째) 가나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는 9일로 예정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이 솔직하게 불교계와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유감이라는 수준의 언급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함께 어 청장이 자진사퇴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국현·김재윤 체포 반대"

김형오 국회의장 "불구속 기소가 원칙"

김형오 국회의장이 공천헌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외국 영리병원의 인허가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4일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원칙적인 입장"이라면서도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재범 가능성 등이 없다면 불구속 기소하는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대조를 이루는 발언이어서 한나라당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김 의장은 이날 "더구나 지금은 국회 회기 중"이라면서 "구속영장 발부는 여야 간에 아주 날카롭게 대립이 일어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 기본권 문제가 강화돼 있고, 인신구속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형사소송법에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 입장에서 들여다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72시간 안에 반드시 표결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법무부, 문국현·김재윤 체포동의 국회 요청

법무부는 4일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와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이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문 대표는 이한정 창조한국당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수원지검에서 체포영장이 청구됐고, 김 의원은 외국 영리법인병원 설립을 추진한 N사로부터 관련법 개정 · 인허가 로비 청탁과 함께 3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대검 중수부에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어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면 법원은 영장발부 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18대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안이 요청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통신료 인하 위해 경쟁 촉진시켜야"

李 대통령 방통위 업무보고…규제 풀어 세계적 미디어 출현 유도

이명박 대통령은 4일 "방송통신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 세계적 수준의 미디어가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가계의 통신비 지출이 너무 많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는 만큼 업계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경쟁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방송통신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방송과 통신을 통합해 방통위를 발족시킨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IPTV 도입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5년쯤 늦어져 주춤하는 사이에 미국과 일본이 앞질러 갔다"고 지적한 뒤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원천기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사 사장 선임 문제 등을 염두에 둔 듯 "언론으로서의 방송 중립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면서 "방송은 국민을 위해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외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의 침해와 불건전한 정보유통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정보전염병' 차단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현대백화점 HYUNDAI

9/5(금) 9/6(토) 9/7(일) 3일 남았습니다!

구매고객께 「현대상품권」을 드립니다

카드+현금+상품권 합산 가능 증정기간 : 8/29(금)~9/7일 증정장소 : B층 시은홀 증정 데스크

20만원 이상	1만원 상품권
40만원 이상	2만원 상품권
60만원 이상	3만원 상품권
100만원 이상	5만원 상품권

증정방법 · 당일 본인 구매 영수증에 한하여 합산 가능하며, 한 개의 영수증을 분할하여 상품권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다른 행사와 중복하여 증정하지 않으며, 합산한 영수증 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 되었을 때 상품권을 드립니다.
· 식품, 가전은 구매금액의 50%만 인정합니다.(단, 소형가전/건강식품은 100% 인정)
· 식품 선물세트 100% 인정합니다.(식품 선물세트 中 청옥/선어/건어/건강/한과/수입주류 세트에 한함)

증정제외대상 · 담배, 상품권, 문화센터, 매월시, 일부해외명품(가방/지갑/시계/안경류 포함) 및 일부 매장은 증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품격을 전하는 마음의 선물
현대백화점 상품권

한가위 상품권 구매고객을 위한 특별한 선물

증정기간 : 8/29(금)~9/13(토) 증정장소 : 1층 소공연특설무대

· 1천만원 상품권을 구매하시면 "HOLIDAY 패키지"를 한정판매 합니다.
(HOLIDAY는 1천만원 구매시 20만원 상품권을 드리는 특별한 선물용 패키지를 말합니다.)
· 500만원이상 구매고객께 현대백화점 5만원 상품권을 드립니다.
· 200만원이상 구매고객께 시은홀을 드립니다. (택1)

와인세트 (60P)	New 프리 SD 골세트	홍삼도 추석명절 고급세트

※ 1,2,3번 경우에 따라 사은품이 품절될 수도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사은품 고객 안내문의 : 070-4141-8000)
· 20만원이상 구매고객께 무료로 고급포장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 백수형 포장별 : 보자기, 종이백(비닐가지)
- 조사원(단순) 포장별 : 보자기, 종이백, 수제 골판지박스

30분 여유쇼핑 : 9/5(금)~12(금) 8시 30분까지 연장영업
30분 빠른쇼핑 : 9/8(월)~12(금) 지하1층 식품관/ 1층 명품·잡화 매장 10시 영업시작
상품권 임시데스크 조기판매 : 9/3(수)~12(금) 한시간 일찍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1층 국외주차장 엘리베이터 옆)

상품권 데스크 : 현대백화점 광주점 1층(062)510-3333~4
상품권 임시 데스크 : 1층 여성주차장 엘리베이터 옆 (062)510-3339~9 ※운영기간 : 9/3(수)~9/12(금)